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6월 4일

## CUOMO 주지사, PINCKNEY 중령이 뉴욕 주방위군의 제2 대량살상무기 민간지원팀을 지휘한다고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육군 주방위군의 Andrew Pinckney 중령이 뉴욕주 제2 대량살상무기 민간지원팀(CST)의 지휘를 맡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2 CST는 테러 공격 시 사용되거나 사고로 방출되는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능 작용제를 파악해내는 훈련을 받은 요원들로 구성된 공동 육공군 주방위군 부대입니다.

[Pinckney](#) 중령은 Rensselaer 주민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번의 전투를 치른 참전군인입니다. 그는 6월 9일 월요일에 CST 지휘를 맡을 예정입니다.

“제2 민간지원팀은 고도로 특화된 주방위군으로 테러리스트 공격과 위험한 산업 재해에 대응하는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의 오랜 역사에서 역전을 거친 장교인 Pinckney 중령이 우리 뉴욕주민과 미국민들을 계속 보호하면서 이 중요한 부대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Scotia의 Stratton 공군 주방위 기지에 자리한 제2 CST는 첨단 탐지 장비를 갖춘 곳으로 부대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부대는 슈퍼볼이나 UN 총회 개최 기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행사를 지원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팀을 배치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공격 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육군 주방위군 요원인 Pinckney는 6월 9일 이취임식 자리에서 Thomas Benton 중령의 자리를 이양 받을 것입니다. 6월 9일 이취임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취재원들은 (518) 786-4581로 전화를 걸어 육해군부 홍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inckney 중령은 1995년 SUNY Brockport에서 형사 행정학 학사로 졸업한 후 같은 해에 육군에 들어갔습니다. 1998년에는 장교후보생학교(Officer Candidate School)에 들어가 야전포병장교로 임관하였습니다. 그는 제101 공중강습사단, 제3 보병사단, 제10 산악사단을 거친 후 2004년에 현역 근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2000년과 2001년에 제3 보병사단 소속으로 코소보에서

Korean

화력지원장교로 복무했고, 2003년에는 제10 산악사단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였습니다.

Pinckney 중령은 2004년에 뉴욕 육군 주방위군에 들어와 , Hoosick Falls에서 중대 C 제1 부대 제101 기갑부대 지휘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Syracuse에 있는 제27 보병여단 전투대에서 복무하고 Buffalo에 있는 제2 중대 제101 기갑부대의 선임참모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12년에 보안군자문팀(Security Force Advisory Team) 지휘관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되었습니다.

포상으로는 청동성장, 근무공로훈장, NATO 훈장, 아프가니스탄 종군기장, 코소보 공훈장, 합참표창훈장, 국방종군기장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